

크툴루의 부름

The Call of Cthulhu

H.P. 러브크래프트 (1890-1937)

1928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5-24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H.P. Lovecraft, "The Call of Cthulhu" (1928, "Weird Tales"
2월호)

저자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 (Howard Phillips Lovecraft,
1890–1937)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68283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GB10 로컬)

발행

sosig.shop/book · 2026-05-24

번역 정책

가독성을 우선해 옅기되 코스믹 호러 특유의 음산한 격조를 살렸습니다. 크툴루·를리에 등 고유명사와 주문(Ph'nglui mglw'nafh Cthulhu R'lyeh wgah'nagl fhtagn)은 원문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토록 거대한 힘이나 존재들이 어딘가에 살아남아 있을지도 모른다. 인류가 진보하며 밀려나기 훨씬 전, 아주 먼 옛날의 흔적 말이다. 어쩌면 의식이라는 것이 이미 사라져 버린 기이한 형상과 모습으로 존재했을지도 모른다. 시와 전설만이 그 찰나의 기억을 붙잡아 신이나 괴물, 혹은 온갖 종류의 신화적 존재라 불렀을 뿐인 그런 모습들 말이다.

--알저논 블랙우드.

[삽화: "숭배자들의 원은 육신의 원과 불의 원 사이에서 끝없는 바카날리아의 춤을 추며 움직였다."]

[각주 1: 보스틴 출신의 고(故) 프랜시스 웨일런드 서스턴의 유품 중에서 발견 됨.]

제1부 · 점토 속의 공포

세상에서 가장 자비로운 일은, 인간의 정신이 자신이 가진 모든 정보를 서로 연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는 무한한 암흑의 바다 한가운데, 무지라는 이름의 잔잔한 섬에 떠서 살아가고 있다. 애초에 인간이 먼 바다로 항해하도록 만들어지지도 않았다.

각자의 방향으로 힘을 쏟아온 과학 기술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별다른 해를 끼치지 않았다. 하지만 언젠가 흩어져 있던 지식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드러날 현실의 광경은 너무나도 끔찍할 것이다. 그 속에서 우리가 처한 처참한 위치를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계시를 감당하지 못해 미쳐버리거나, 혹은 그 치명적인 빛을 피해 다시금 평화롭고 안전한 암흑의 시대로 도망쳐 버릴지도 모른다.

신지학자들은 우주의 거대한 순환에 대해 나름의 추측을 내놓곤 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 세계와 인류는 그 거대한 흐름 속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찰나의 사건에 불과했다. 그들은 기이한 생존의 흔적들

에 대해 암시를 던지기도 했는데, 만약 그들이 이를 무미건조한 낙관주의로 포장하지 않았더라면 피가 얼어붙을 만큼 섬뜩했을 내용이었다.

하지만 나를 전율케 하고, 꿈속에서 나를 미치게 만드는 금기된 영겁의 편린을 목격한 것은 그들이 아니었다. 그 찰나의 목적은, 모든 공포스러운 진실이 그러하듯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우연히 맞물리며 드러난 것이었다. 이번 경우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와 죽은 교수의 메모가 그러했다.

나는 다른 누구도 이 조각들을 다시 맞추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 내가 살아남는다고 해도, 이 끔찍한 사슬의 고리가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교수 또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침묵하려 했던 것 같다. 만약 갑작스러운 죽음이 그를 덮치지 않았더라면, 그는 자신의 메모를 스스로 파기했을 것이다.

그 기괴한 존재에 대해 알게 된 것은 1926년에서 1927년 사이의 겨울이었다. 당시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에 있는 브라운 대학교의 세미트어학 명예교수였던 나의 종조부, 조지 개럴 앤젤이 세상을 떠났다. 앤젤 교수는 고대 비문 연구의 권위자로 널리 알려져 있었기에, 유명 박물관의 관장들이 그에게 자문을 구하는 일은 흔했다. 그래서 그가 아흔두 살의 나이로 별세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의 기억에 남아 있을 것이다.

지역 사회에서는 교수의 사인(死因)이 불분명하다는 점 때문에 더욱 관심이 뜨거웠다. 교수는 뉴포트에서 배를 타고 돌아오던 길에 갑자기 쓰러졌다.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해안가에서 윌리엄스 가에 있는

교수의 집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인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던 중이었다. 그때 험상궂은 외모의 흑인 한 명이 교수를 거칠게 밀치고 지나갔고, 그 직후 교수는 돌연 쓰러졌다. 그 흑인은 언덕의 기묘하고 어두운 골목 중 한 곳에서 나타났다고 한다.

의사들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상 징후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들은 한참 동안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고령의 노인이 가파른 언덕을 급히 오르다 심장에 알 수 없는 손상을 입어 사망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당시의 나는 그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나는 의구심을 품게 되었다. 단순한 의구심을 넘어, 형언할 수 없는 의문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큰삼촌은 자식 없이 홀로 세상을 떠나셨기에, 나는 그의 상속인이자 유언 집행자로서 삼촌이 남긴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해야 했다. 나는 그 목적을 위해 삼촌의 서류 뭉치와 상자들을 전부 보스턴에 있는 내 숙소로 옮겨 왔다. 내가 정리한 자료 중 상당수는 나중에 미국 고고학회에서 출판될 예정이다. 하지만 그중 유독 나를 당혹스럽게 만든 상자가 하나 있었다.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보여주고 싶지 않을 만큼 기괴한 상자였다.

상자는 잠겨 있었다. 삼촌이 늘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개인용 반지를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서야 겨우 열쇠를 찾아낼 수 있었다. 마침내 상자를 여는 데 성공했지만, 그 안에는 더 거대하고 견고한 장벽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안에 담긴 기묘한 점토 부조와 앞뒤가 맞지 않는 메모, 횡설수설하는 글귀들, 그리고 여기저기서 오려낸 중

이 조각들이 대체 무엇을 의미한단 말인가? 삼촌은 노년에 들어 아주 빠른 속임수에도 쉽게 넘어갈 만큼 판단력이 흐려지셨던 걸까? 나는 노인의 평온한 마음을 이토록 어지럽혀 놓은, 이 기괴한 조각가가 누구인지 반드시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부조는 두께가 1인치도 채 되지 않는 투박한 직사각형 모양이었다. 크기는 대략 5x6인치 정도였는데, 누가 보아도 현대에 만들어진 물건임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 안에 새겨진 문양만큼은 분위기나 암시하는 바가 결코 현대적이지 않았다. 입체주의나 미래주의 같은 화풍이 아무리 기괴하고 파격적이라 한들, 선사 시대의 문자 속에 숨어 있는 저 기묘한 규칙성까지 재현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이 문양의 대부분은 분명 어떤 종류의 문자처럼 보였다. 비록 삼촌의 서류와 수집품들을 워낙 자주 접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억으로는 이 특정한 형태가 무엇인지, 혹은 아주 희미한 연관성이라도 있는지도 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이 기묘한 상형문자들 위에는 분명히 어떤 형상을 묘사하려 한 그림이 하나 있었다. 다만 인상주의 화가처럼 거칠게 그려진 탓에 그 정체가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그것은 일종의 괴물, 혹은 괴물을 상징하는 문양처럼 보였다. 오직 병적인 망상 속에서나 떠올릴 법한 기괴한 형태였다. 나의 다소 과장된 상상력이 문어와 용, 그리고 인간을 희화화한 형상을 동시에 떠올렸다고 말한 다 해도, 그것이 원래 의도했던 느낌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물렁물렁한 축수가 달린 머리가 기괴하고 비늘 덮인 몸통 위에 얹혀 있었고, 그 몸통에는 퇴화한 날개 같은 것이 달려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이고 공포스러웠던 것은 그 형상이 이루는 전체적인 윤곽이었다. 그 형상의 뒤편으로는 거대한 석조 건축물의 잔영이 희미하게 어른거리고 있었다.

이 기이한 물건과 함께 놓인 기록들은 한 무더기의 신문 스크랩을 제외하면 모두 앤젤 교수가 최근에 직접 쓴 것이었다. 문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투박한 글이었다. 가장 핵심적인 문서로 보이는 것의 머리말에는 ‘크툴루 교단(CTHULHU CULT)’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듣도 보도 못한 단어를 잘못 읽는 일이 없도록, 아주 정성 들여 인쇄한 글자였다.

이 원고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 첫 번째 부분의 머리말은 ‘1925년—H. A. 월콕스의 꿈과 몽상(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 토마스 가 7번지)’이었고, 두 번째 부분은 ‘1908년 A. A. S. Mtg에서 들은 존 R. 르그라스 경위(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비엔빌 가 121번지)의 진술—관련 기록 및 웹 교수 보고서’였다.

그 외의 원고들은 모두 짧은 메모들이었다. 어떤 것은 여러 사람이 꾸민 기묘한 꿈에 관한 기록이었고, 어떤 것은 신지학 서적이나 잡지에서 발췌한 내용이었다(특히 W. 스콧 엘리엇의 『아틀란티스와 잃어버린 레무리아』가 눈에 띄었다). 나머지 메모들은 오래전부터 존속해 온 비밀 결사나 숨겨진 교단에 관한 논평이었는데, 프레이저의 『황금가지』나 머레이 양의 『서유럽의 마녀 숭배』 같은 신화학 및 인류학

서적의 구절들을 인용하고 있었다. 신문 스크랩들은 주로 1925년 봄에 발생했던 기괴한 정신 질환이나 집단적 광기, 혹은 집단적 망상에 관한 내용이었다.

주요 원고의 전반부에는 매우 기이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1925년 3월 1일, 신경질적이고 흥분한 기색이 역력한 마르고 어두운 인상인 한 청년이 앤젤 교수를 찾아왔다. 그는 아주 기묘한 점토 부조를 들고 왔는데, 당시 그 부조는 갓 만든 듯 축축하고 생생한 상태였다. 명함에 적힌 이름은 헨리 앤서니 월콕스였다. 삼촌은 그를 알고 있었다. 그는 삼촌과 안면이 있는 명망 있는 가문의 막내아들이었다. 월콕스는 최근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학교에서 조각을 공부하며, 학교 근처 플뢰르 드 리스 빌딩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다.

월콕스는 천재성을 타고난 조숙한 청년이었으나, 동시에 매우 괴팍한 인물이기도 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기묘한 이야기와 이상한 꿈을 늘어놓으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곤 했다. 스스로를 '심령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람'이라 칭했지만, 보수적인 상업 도시의 사람들은 그를 그저 '별난 놈'이라며 치부해 버렸다. 그는 또래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사회적 관계도 점차 끊기면서 이제는 다른 도시에서 온 소수의 탐미주의자들 사이에서나 이름이 알려진 상태였다. 보수성을 유지하려 애쓰는 프로비던스 미술 클럽조차 그를 가망 없는 인물로 여겼다.

교수의 원고에 따르면, 방문 당시 조각가는 갑자기 주인인 교수의 고고학적 지식을 빌려 부조에 새겨진 상형문자를 식별해 달라고 요청

했다. 그는 마치 연기를 하듯 몽환적이고 부자연스러운 말투로 말을 이어갔는데, 그 태도는 보는 이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는커녕 오히려 거부감을 주었다. 내 숙부 역시 날카롭게 응수했다. 그 석판이 눈에 띄게 새것처럼 보였기에, 그것이 고고학적 유물일 리 없다는 사실이 명백했기 때문이다.

젊은 월콕스의 대답은 무척이나 기묘하고 시적인 풍격을 띠고 있었다. 숙부는 그 대답이 인상 깊었던 나머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기록해 두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월콕스의 평소 대화 방식과도 매우 닮아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정말이지 새것이라 할 수 있겠군요. 어젯밤 낮선 도시들이 나타난 꿈속에서 제가 직접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꿈이라는 것은 고뇌에 찬 티레나, 사색에 잠긴 스팅크스, 혹은 정원으로 둘러싸인 바빌론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것이지요."

그때부터 그는 횡설수설하며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는 잠들어 있던 내 기억을 갑작스레 일깨웠고, 삼촌의 열띤 관심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전날 밤,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큰 규모의 미세한 지진이 일어났다. 월콕스는 그 여파로 상상력이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였다. 그는 잠자리에 들어 생전 처음 겪는 기이한 꿈을 꾸었다. 거대한 사이클롭스식 건축물과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단일 석조물들이 끝없이 펼쳐진 거대 도시의 꿈이었다. 그 도시의 모든 것은 초록빛

점액으로 젖어 있었고, 형언할 수 없는 불길한 공포가 잠재되어 있었다.

벽과 기둥은 온통 상형문자로 뒤덮여 있었다. 그리고 저 아래,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곳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목소리라기보다는 차라리 혼란스러운 감각에 가까웠다. 오직 상상력만이 그 감각을 소리로 변환할 수 있을 정도였다. 월콕스는 그 소리를 발음조차 힘든 기괴한 글자들의 나열로 표현하려 애썼다.

"_Cthulhu fhtagn_"

이 뒤섞인 말들은 앤젤 교수를 흥분시키고 불안하게 만든 기억의 열쇠였다. 교수는 과학자 특유의 치밀함으로 조각가에게 질문을 퍼부었다. 또한 그 청년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밤잠을 설치며 몽롱한 상태로 마주했던 그 부조를 거의 광적인 집착으로 파헤쳤다. 청년이 잠결에 흘린 듯 작업하고 있었던 그 부조 말이다. 월콕스의 말에 따르면, 교수가 상형문자와 도안을 알아보는 속도가 더뎠던 건 그저 노쇠한 탓이었다.

방문객인 조각가 입장에서 교수의 질문 중 상당수는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특히 그를 기괴한 종교 집단이나 비밀 결사와 연관 지으려는 질문들은 더욱 그랬다. 게다가 교수는 청년이 어떤 신비주의 단체나 이교도 종교의 일원임을 인정하기만 하면, 무조건 비밀을 지켜주겠노라 거듭 약속했다. 월콕스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조각가가 정말로 어떤 교리나 신비로운 지식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사실을 확신하자, 앤젤 교수는 앞으로 꿈을 꿀 때마다 보고해달라며 청년을 몰아붙였다. 이 요청은 결실을 보았다. 첫 만남 이후, 원고에는 청년이 매일같이 전해온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밤마다 겪는 경악스러운 환상들을 조각조각 들려주었다. 그 꿈의 내용은 언제나 어둡고 축축한 돌덩이들이 늘어선, 거대하고 기괴한 풍경이었다. 그곳에서는 지하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목소리나 지성이 존재했다. 그것은 마치 알아들을 수 없는 헛소리처럼, 기묘하고 단편적인 의미만을 담은 채 단조로운 어조로 외쳐댔다. 그 소리 중 가장 자주 반복되는 것은 "_Cthulhu_"와 "_R'lyeh_"라는 글자로 옮겨진 두 음절이었다.

원고의 기록에 따르면, 3월 23일 월콕스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의 거처를 확인해 보니, 그는 정체 모를 열병에 걸려 워터맨 가에 있는 가족의 집으로 옮겨진 상태였다. 그는 밤중에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건물 안의 다른 예술가들을 깨우기도 했으며, 그 이후로는 의식을 잃었다가 헛소리를 내뱉기를 반복할 뿐이었다.

삼촌은 즉시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때부터 이 사건을 면밀히 살피기 시작했다. 삼촌은 담당 의사인 토비 박사의 테이머가 사무실을 자주 방문했다. 청년의 열병에 젖은 정신은 무언가 기이한 것에 사로잡힌 듯했다. 토비 박사는 그 내용을 이야기할 때마다 때때로 몸서리를 쳤다.

그 기이한 내용에는 예전에 꾸었던 꿈의 반복뿐만 아니라, "수 마일 높이"에 달하는 거대한 존재가 걸어 다니거나 육중하게 움직인다는 광

기 어린 묘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청년이 그 존재를 온전하게 설명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토비 박사가 전한 간헐적인 비명 섞인 말들은, 그 존재가 삼촌의 꿈속 조각상이 묘사하려 했던 이름 없는 괴물과 분명히 같은 것이라는 확신을 교수에게 심어주었다. 박사의 말에 따르면, 그 존재가 언급될 때마다 청년은 예외 없이 무기력한 상태로 빠져들었다고 한다. 묘하게도 청년의 체온은 정상보다 그리 높지 않았으나, 전반적인 증상은 정신 질환이라기보다 실제 열병에 가까워 보였다.

4월 2일 오후 3시경, 월콕스를 괴롭히던 병세가 갑자기 씻은 듯이 나았다. 그는 침대에 똑바로 앉아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자신이 집에 있다는 사실도, 3월 22일 밤 이후 꿈속에서든 현실에서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치의는 그가 완쾌되었다고 판정했고, 월콕스는 사흘 만에 자신의 숙소로 돌아갔다. 하지만 앤젤 교수에게 그는 더 이상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다. 그가 회복되자 기이한 꿈의 흔적도 모두 사라져 버렸다. 삼촌 역시 일주일 동안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평범한 꿈 이야기만 무의미하게 늘어놓다가, 결국 그 밤의 생각들을 더는 기록하지 않았다.

* * * * *

원고의 첫 부분은 여기서 끝났다. 하지만 여기저기 흩어진 메모들 중 몇몇은 내게 생각할 거리를 아주 많이 던져주었다. 사실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당시 내 철학의 근간이었던 뿌리 깊은 회의주의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 화가를 계속 의심하지 못했을 것이다.

문제가 된 메모들은 여러 사람이 겪은 꿈에 관한 기록이었다. 그 시기는 젊은 월콕스가 기이한 환영을 보았던 시기와 일치했다. 삼촌은 무례를 범하지 않는 선에서 접촉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지인에게 방대한 조사를 즉각 시작했던 모양이다. 삼촌은 그들에게 매일 밤 꾸는 꿈을 보고하게 했고, 과거에 겪었던 눈에 띄는 환영이 있다면 그 날짜도 함께 적어달라고 요청했다.

이 요청에 대한 반응은 제각각이었던 듯하다. 하지만 삼촌이 받은 답변의 양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비서 없이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났음이 분명하다. 당시 주고받았던 편지들은 남아 있지 않았지만, 삼촌이 정리해 둔 메모는 매우 철저하고 의미 있는 요약본이 되어 있었다.

사회와 비즈니스계의 평범한 사람들, 즉 뉴잉글랜드의 전형적인 '성실한 시민들'은 거의 전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불안하더라도 형체가 불분명한 밤의 잔상들이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나타나긴 했다. 이 기록들은 모두 3월 23일에서 4월 2일 사이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는 젊은 월콕스가 섬망 증세를 보였던 시기와 정확히 맞물린다.

과학계 종사자들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네 건의 모호한 기록을 보면, 기이한 풍경을 찰나에 목격한 듯한 묘사가 나타나며, 그중 한 사례에서는 무언가 비정상적인 것에 대한 공포가 언급되기도 했다.

결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이들은 다른 아님 예술가와 시인들이었다. 만약 그들이 서로의 경험을 대조할 기회라도 가졌더라면, 아마 세상은 온통 공포로 뒤덮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원본 편지들을 직접 볼 수 없었기에, 나는 편집자가 유도 심문을 했거나 혹은 자신이 이미 내린 결론에 끼워 맞추려 편지들을 편집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도 했다. 내가 월콕스가 삼촌의 옛 자료들을 어렵듯이 알고 있었기에, 노련한 과학자인 앤젤 교수를 몰아붙이고 있다고 느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미학자들의 답변은 불길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다. 2월 28일부터 4월 2일 사이, 그들 중 상당수가 매우 기괴한 꿈을 꾸었다. 특히 조각가가 망상에 빠져 있던 시기에는 꿈의 강도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강해졌다. 무언가를 보고했다고 답한 이들 중 4분의 1 이상이 월콕스가 묘사한 것과 흡사한 광경과 희미한 소리들을 보고했다. 꿈을 꾸는 이들 중 일부는 꿈의 마지막에 나타난,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거대한 존재를 보고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고 고백했다.

그중에서도 기록자가 유독 강조하여 서술한 한 사례는 매우 비극적이었다. 신지학이나 오컬트에 심취해 있던 유명 건축가가 주인공이었는데, 그는 젊은 월콕스가 발작을 일으킨 날 격렬한 정신 착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몇 달 뒤, 지옥에서 탈출한 무언가로부터 자신을 구해달라고 끊임없이 비명을 지르다 숨을 거두고 말았다.

만약 삼촌이 이 사례들을 단순히 번호로만 남기지 않고 실명으로 기록해 두었더라면, 나는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하려 했을 것이

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겨우 몇 가지 사례만을 찾아낼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찾아낸 사례들은 모두 기록된 내용과 완벽히 일치했다. 나는 교수에게 질문을 받았던 이들이, 내가 확인한 이들만큼이나 혼란스러워했을지 종종 궁금해하곤 한다. 다만, 그들에게 어떤 설명도 달지 않는 것이 차라리 다행일지도 모르겠다.

이미 암시했듯, 신문 스크랩들은 해당 시기에 발생한 공황 상태와 광기, 그리고 기이한 행동들에 관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었다. 앤젤 교수는 아마 스크랩 전문 업체를 이용했을 것이다. 발췌된 자료의 양이 엄청난 데다, 출처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런던에서는 한 명의 잠자던 이가 충격적인 비명을 지른 뒤 창밖으로 뛰어내린 야간 자살 사건이 있었다. 남미의 한 신문 편집자에게 배달된 장황한 편지에는, 자신이 본 환영을 근거로 끔찍한 미래를 예언하는 광신도의 글이 실려 있었다. 캘리포니아에서 온 보고는 어떤 신지학자 공동체가 '영광스러운 성취'를 기다리며 집단으로 흰 옷을 입고 나타났으나, 정작 그 성취는 끝내 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인도에서는 3월 말 무렵 현지인들 사이에서 심상치 않은 소요가 일고 있다는 소식이 조심스럽게 보도되었다. 아이티에서는 부두교의 광란적인 의식이 빈번해졌고, 아프리카의 전초 기지들에서는 불길한 중얼거림이 들려온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필리핀에 주둔한 미국 장교들은 이 무렵 특정 부족들이 소란을 피워 골머리를 앓았으며, 뉴욕의 경찰들은 3월 22일에서 23일 사이 히스테리에 빠진 레반트인들에게 둘러싸여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아일랜드 서부 역시 온갖 괴이한 소문과 전설로 가득했다. 1926년

파리 봄 살롱에는 아르두아-본노라는 이름의 기괴한 화가가 신성모독적인 작품인 <꿈의 풍경>을 내걸기도 했다.

정신병원에서 기록된 문제들 또한 너무나 많아서, 의료계가 이 기묘한 평행 이론들을 포착하고 혼란스러운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종합해 보면 참으로 기괴한 스크랩들이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당시 내가 이 자료들을 얼마나 냉정하고 이성적인 태도로 치워버렸는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하지만 그때만큼은, 젊은 윌콕스가 교수가 언급한 그 오래된 사건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확신했다.

제2부 · 르그라스 경위의 이야기

조각가의 꿈과 부조에 담긴 그 심오한 의미를 내 숙부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는, 그보다 더 오래된 사건들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은 숙부가 남긴 긴 원고의 후반부를 차지하고 있었다. 앤젤 교수 역시 이전에 한 차례, 이름 모를 괴물의 지옥 같은 형상을 목격했던 모양이다. 그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상형문자들을 보며 의구심을 품었고, 오직 "Cthulhu"라고만 옮길 수 있는 불길한 음절들을 들었다. 이 모든 일이 워낙 충격적이고도 끔찍한 사건들과 얽혀 있었기에, 그가 젊은 월콕스를 쫓아다니며 질문을 던지고 자료를 요구했던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이보다 앞선 경험은 17년 전인 1908년에 있었다. 당시 미국 고고학 협회가 세인트루이스에서 연례 회의를 개최했을 때의 일이다. 앤젤 교수는 그의 권위와 학식에 걸맞게 모든 논의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다. 또한, 회의를 틈타 질문을 던지거나 전문가의 해결책을 구하려던 외부인들이 가장 먼저 찾아가는 인물 중 하나이기도 했다.

이 이방인들 중 우두머리이자, 곧 회의 전체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된 인물은 평범해 보이는 중년 사내였다. 그는 현지의 어떤 자료로도 구할 수 없는 특정한 정보를 얻기 위해 뉴올리언스에서 이곳까지 먼 길을 달려왔다. 그의 이름은 존 레이먼드 르그라스였으며, 직업은 경찰 경위였다. 그는 방문 목적을 증명할 물건 하나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기괴하고 혐오스러우며, 누가 보아도 아주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석상이었다. 르그라스 경위조차 그 석상의 기원을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르그라스 경위가 고고학에 조금이라도 흥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는 순전히 업무적인 이유 때문에 진상을 파악하고자 했다. 그 조각상이 우상인지, 주술 도구인지, 혹은 그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그것은 몇 달 전 뉴올리언스 남쪽의 늪지대에서 벌어진 부두교 집회 급습 과정에서 압수된 물건이었다. 당시 목격된 의식은 너무나 기이하고 끔찍했다. 경찰은 자신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어둠의 교단을 마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아프리카의 가장 악랄한 부두교 집단보다도 훨씬 더 사악한 존재였다.

체포된 단원들에게서 억지로 캐낸 터무니없고 믿기 힘든 이야기들을 제외하면, 그 조각상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었다. 그래서 경찰은 이 공포스러운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교단의 근원이 어디인지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고고학적 지식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르그라스 경위는 자신이 가져온 물건이 불러일으킬 파장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그 형상을 단 한 번 마주한 것만으로도, 자리에 모인 과

학자들은 팽팽한 긴장과 흥분에 휩싸였다. 학자들은 지체 없이 경위의 주위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그 작은 조각상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기이하고 심연의 고대성을 띠는 그 모습은, 인류가 아직 열어보지 못한 아득한 태고의 풍경을 강렬하게 암시하고 있었다. 그 끔찍한 형상은 그 어떤 조각 양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녹색빛 돌로 이루어진 그 흐릿한 표면에는, 수백 년 혹은 수천 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듯했다.

사람들은 이 형상을 하나씩 건네받으며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다. 높이는 7, 8인치 정도였는데, 조각의 솜씨가 무척이나 정교하고 예술적이었다. 형상은 희미하게 인간의 윤곽을 띠고 있었으나, 머리는 축수가 뒤엎킨 문어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몸체는 비늘이 덮인 고무 같은 질감이었고, 앞뒤 발에는 거대한 발톱이 달려 있었으며, 등 뒤로는 길고 좁은 날개가 돋아 있었다.

이 괴물은 마치 끔찍하고 부자연스러운 악의가 깃든 것처럼 보였다. 몸집은 다소 비대하게 부풀어 있었고, 해독할 수 없는 글자들이 새겨진 직사각형 받침대 위에 불길하게 웅크리고 있었다. 날개 끝은 받침대 뒷면에 닿아 있었고, 몸체는 중앙에 자리 잡았다. 굽힌 뒷다리의 길고 흰 발톱은 받침대 앞쪽 가장자리를 움켜쥔 채 바닥 쪽으로 4분의 1가량 뻗어 있었다. 두족류의 머리는 앞으로 숙여져 있었는데, 그 덕분에 얼굴의 축수 끝이 무릎을 감싸 쥔 거대한 앞발 뒷부분에 살짝 맞닿아 있었다.

전체적인 모습은 기이할 정도로 생생했다. 그 근원을 전혀 알 수 없었기에, 공포는 더욱 미묘하고도 깊게 다가왔다. 이 형상이 품은 막대한 세월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고대의 흔적은 분명했다. 하지만 인류 문명의 초기 예술은 물론, 그 어떤 시대의 예술 양식과도 연결되는 지점이 단 하나도 없었다.

그 물질 자체도 완전히 별개의, 미지의 영역이었다. 비누처럼 매끄러우면서도 녹색빛이 도는 검은 돌에는 금빛 혹은 무지갯빛의 반점과 줄무늬가 섞여 있었는데, 이는 지질학이나 광물학에서 다루는 그 어떤 것과도 닮지 않았다. 밑바닥을 따라 새겨진 글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당혹스러웠다. 그 자리에 모인 이들은 해당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들을 절반이나 모아놓은 자리였음에도, 그 글자들이 어떤 언어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지조차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그 글자들은 조각된 대상이나 물질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는 인류와는 소름 끼칠 정도로 멀고도 이질적인 무언가에 속해 있었다. 그것은 우리 세계나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래되고 불경한 생명의 순환을 끔찍하게 암시하고 있었다.

경위가 제시한 난제 앞에 참석자들이 저마다 고개를 저으며 패배를 인정할 때였다. 그 모임 중 한 사람만이 그 괴물 같은 형상과 글귀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기이한 사실을 조심스럽게 꺼내 놓았다. 이 사람은 프린스턴 대학교의 인류학 교수이자 저명한 탐험가였던, 고(故) 윌리엄 채닝 웹이었다.

웹 교수는 48년 전, 룬 문자가 새겨진 유물을 찾아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를 탐사한 적이 있었다. 비록 원하는 유물을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그는 서그린란드 해안 높은 곳에서 기이한 부족 혹은 이교도를 만났다. 타락한 에스키모들로 구성된 그 집단은 악마를 숭배하는 기묘한 종교를 믿고 있었는데, 그 의식에 서린 노골적인 잔혹함과 혐오스러움은 교수에게 서늘한 공포를 안겨주었다.

다른 에스키모들은 이 신앙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몸서리를 치며, 이 종교가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인 아주 먼 옛날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만 말할 뿐이었다. 이름 모를 의식과 인신공양 외에도, 그들에게는 최고령 악마인 '토르나수크(tornasuk)'에게 바치는 기이한 세습 의례가 있었다. 웹 교수는 노령의 '안게콕(angekok)', 즉 주술사로부터 그 명칭을 듣고 자신이 아는 대로 로마자로 정성껏 옮겨 적어 두었다.

하지만 지금 이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단이 소중히 간직하며 빙벽 위로 오로라가 높게 치솟을 때마다 그 주위를 돌며 춤을 추던 신상이었다. 교수의 기록에 따르면, 그것은 끔찍한 형상과 해독할 수 없는 글귀가 새겨진 매우 투박한 돌 부조였다. 그리고 교수가 파악한 바로는, 그 부조의 핵심적인 특징들은 지금 회의장 앞에 놓인 이 짐승 같은 물체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모여 있던 회원들은 이 자료를 접하고 경악과 의구심에 휩싸였다. 르그라스 경위에게 이 자료는 두 배로 흥미로운 것이었다. 그는 즉시 정보원에게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부하들이 체포한 늑지대 숭배

자들 사이에서 들려온 구전 의례를 기록하고 옮겨 적어 두었던 그는, 에스키모 악마 숭배자들에게서 받아 적은 음절들을 최대한 기억해 내 달라고 교수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이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세부 사항을 대조하는 치열한 과정이 이어졌다. 그러다 이윽고 형사와 과학자 모두가 경외감에 사로잡혀 침묵에 빠진 순간이 찾아왔다. 서로 너무나 멀리 떨어진 두 지옥 같은 의례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문구가, 사실상 같은 것이라는 점에 두 사람이 동의했기 때문이다.

에스키모 마법사들과 루이지애나 늪지대 사제들이 각자의 우상에게 읊조린 주문의 실체는 대략 다음과 같았다. 구절의 끊어 읽기는 실제 주문을 외울 때의 관습적인 호흡을 바탕으로 추측해 본 것이다.

"Ph'nglui mglw'nafh Cthulhu R'lyeh wgah'nagl fhtagn."

르그라스 경위는 웹 교수보다 한발 앞서 있었다. 포로 중 잡종 혈통을 가진 몇몇이, 과거의 의식 참여자들로부터 그 주문의 의미를 전해 들었다고 그에게 털어놓았기 때문이다. 그가 전한 주문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를리에의 저택에서, 죽은 크툴루가 꿈꾸며 기다린다."

* * * * *

이제 사람들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르그라스 경위는 늪지대 숭배자들과 겪었던 일을 가능한 한 상세히 들려주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나의 삼촌이 왜 그토록 깊은 의미를 부여했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 이야기는 신화 제작자나 신지학자들이나 꾸며낼 법한 기괴한 꿈처럼 느껴졌다. 또한, 가장 낮고 천한 부류라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들이, 이토록 경이로울 만큼 거대한 우주적 상상력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었다.

1907년 11월 1일, 뉴올리언스 경찰은 남쪽 늪지대와 석호 근처에서 날아온 다급한 호출을 받았다. 그곳에 사는 정착민들은 대부분 라피트의 부하들이 남긴 후손들로, 미개하긴 해도 성품은 선량한 이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밤사이 소리 없이 찾아든 정체 모를 존재에 사로잡혀 극심한 공포에 떨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부두(voodoo)의 소행 같았으나, 그들이 지금까지 겪어 온 것과는 차원이 다른 끔찍한 종류의 것이었다. 검고 불길한 숲속, 그 누구도 발을 들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 악의적인 북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기 시작한 이후, 여자와 아이들이 몇 명이나 사라졌다.

미친 듯한 외침과 고통스러운 비명, 영혼을 얼어붙게 만드는 주문 소리와 악마의 불꽃 같은 춤사위가 이어졌다. 겁에 질린 전령은 사람들이 더는 이 상황을 견딜 수 없다고 덧붙였다.

늦은 오후, 경찰 스무 명을 태운 마차 두 대와 자동차 한 대가 몸을 벌벌 떠는 거주자를 길잡이 삼아 출발했다.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그들은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낮의 빛조차 들지 않는 끔찍한 사이프러스 숲을 지나, 수 마일 동안 침묵 속에 물웅덩이를 튀기며 나아갔다. 흉측한 나무뿌리와 스페인 이끼가 올라미처럼 매달려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기형적인 나무들과 버섯이 돌아난 작은 섬들이 만들어낸 움푹한 지형 속에는, 습기 찬 돌무더기나 썩어가는 담장 잔해들이 곳곳에 널려 있었다. 그 잔해들은 마치 누군가 불길하게 거주하고 있다는 암시를 던지며 공포를 더했다.

마침내 오두막들이 비참하게 모여 있는 거주지가 시야에 들어왔다. 히스테리에 빠진 주민들이 밖으로 뛰쳐나와 흔들리는 등불 무리 주위로 몰려들었다. 멀리, 아주 멀리 앞쪽에서는 둔탁한 북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마다 소름 끼치는 비명이 간간이 울려 퍼졌다. 끝없이 이어진 숲의 어둠 너머로, 창백한 덩불 사이를 뚫고 붉은 안광 같은 것이 새어 나오는 듯했다.

겉에 질린 거주자들은 다시는 혼자 남겨지고 싶지 않았기에, 불경한 예배가 치러지는 곳을 향해 단 한 발자국도 더 움직이기를 완강히 거부했다. 결국 르그라스 경위와 열아홉 명의 동료들은 길잡이도 없이, 그 누구도 발을 들여본 적 없는 공포의 검은 회랑 속으로 몸을 던졌다.

경찰이 진입한 그 지역은 예부터 악명이 높았던 곳이었다. 백인들은 거의 발을 들인 적도, 그 실체를 아는 이도 드물었다. 그곳에는 필멸자의 눈에는 결코 보이지 않는 숨겨진 호수가 있다는 전설이 내려왔다. 그 호수 속에는 빛나는 눈을 가진, 형체도 알 수 없는 거대하고 하얀 흡수 괴물이 살고 있다고 했다. 땅속 깊은 동굴에서는 박쥐 날개를 단 악마들이 날아올라, 한밤중에 그 괴물에게 경배를 올린다는 소문도 무성했다. 디베르빌이나 라살이 나타나기 전부터, 인디언들이 오기 전부터, 심지어 숲의 건전한 짐승과 새들이 생겨나기 전부터 그 존재는 이

미 그곳에 있었다고 사람들은 말했다. 그것은 악몽 그 자체였으며, 그것을 목격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존재를 꿈속에서나 마주할 뿐이었고, 덕분에 그곳을 멀리해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잘 알고 있었다. 이번에 벌어진 부두(voodoo) 광란의 의식은 사실 이 혐오스러운 구역의 아주 끝자락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하지만 그 장소만으로도 충분히 불길한 곳이었다. 어쩌면 무시무시한 소음이나 사건들보다, 의식이 치러진 그 장소 자체가 거주민들을 더 공포에 떨게 했을지도 모른다.

르그라스의 부하들이 붉은 불빛과 둔탁한 북소리를 향해 검은 늑지대를 헤치며 나아갈 때, 그들이 들었던 소음은 시나 미친 자의 헛소리로나 겨우 설명할 수 있을 정도였다. 인간에게는 인간 특유의 목소리가 있고, 짐승에게는 짐승 특유의 목소리가 있다. 그런데 마땅히 한쪽이 어야 할 존재에게서 다른 쪽의 목소리가 들려온다는 사실은 실로 끔찍한 일이다.

짐승 같은 광기와 난잡한 방종은 울부짖음과 비명 섞인 황홀경 속에서 악마적인 높이까지 치솟았다. 그 소리들은 마치 지옥의 심연에서 불어온 역병 같은 폭풍처럼 어두운 숲을 찢어발기며 울려 퍼졌다. 때때로 형체를 알 수 없는 울음소리들이 잦아들 때면, 잘 훈련된 합창단처럼 거친 목소리들이 일제히 일어나 기괴한 리듬을 타며 그 끔찍한 주문을 읊조리기 시작했다.

"Ph'nglui mglw'nafh Cthulhu R'lyeh wgah'nagl fhtagn."

나무가 드문드문해진 곳에 다다르자, 사람들의 눈앞에 그 광경이 돌연 나타났다. 네 명은 비틀거렸고, 한 명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또 다른 두 명은 광기 어린 비명을 내질렀으나, 다행히도 광란의 축제가 만들어내는 소음이 그 비명을 집어삼켰다. 르그라스 경위가 쓰러진 이의 얼굴에 땀물을 끼얹었지만, 남은 이들은 모두 공포에 질려 최면에 걸린 듯 떨며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늘지대의 자연스러운 공터에는 나무 한 그루 없이 제법 건조한, 약 1 에이커 정도 넓이의 풀밭 섬이 하나 있었다. 그곳에서는 시메나 안가를 라 같은 화가가 아니면 도저히 그려낼 수 없을 만큼, 기괴하고 형언할 수 없는 인형(人形)의 무리가 뒤엉켜 날뛰고 있었다.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이 잡종의 후손들은 거대한 고리 모양의 모닥불 주위에서 울부짖고, 포효하며, 몸을 뒤틀었다. 불꽃의 장막이 가끔 갈라질 때마다 그 중심이 드러났다. 그곳에는 높이 8피트 정도 되는 거대한 화강암 단일 석주가 서 있었고, 그 꼭대기에는 크기가 어울리지 않을 만큼 작고 불쾌한 조각상이 놓여 있었다.

불길에 둘러싸인 석주를 중심으로, 일정한 간격마다 열 개의 교수대가 넓게 원을 그리며 세워져 있었다. 그 교수대에는 행방불명되었던 무력한 거주자들의 기괴하게 훼손된 시신들이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 예배자들이 원을 그리며 뛰어오르고 포효하는 곳은 바로 이 교수대 안쪽이었다. 시신들이 매달린 원과 불길이 타오르는 원 사이에서, 사람들은 끝없는 광란의 축제에 빠진 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끊임없이 움직이며 요동치고 있었다.

그저 상상이었을지도 모른다. 혹은 그저 메아리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소리 때문에, 성격이 급하고 예민했던 스페인인 한 명이 기이한 착각에 빠지고 말았다. 그는 고대의 전설과 공포가 서린 깊은 숲속, 빛조차 들지 않는 저 먼 곳에서 의식에 화답하는 듯한 메아리가 들려왔다고 믿었다.

나는 나중에 이 남자, 조셉 D. 갈베즈를 만나 심문했다. 그는 정신을 산란하게 만들 정도로 상상력이 지나치게 풍부한 사람이었다. 그는 심지어 거대한 날개가 파닥거리는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숲의 가장 먼 나무 너머로 번뜩이는 눈동자와 산더미처럼 거대한 하얀 형체를 언뜻 보았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하지만 나는 그가 그저 현지의 미신에 너무 깊이 물들어 있었던 것이라 생각했다.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멈춰 선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의무가 공포보다 앞섰기 때문이다. 군중 속에는 잡종 같은 광신도들이 백 명 가까이 모여 있었으나, 경찰들은 총기에 의지한 채 구역질 나는 혼란 속으로 단호하게 돌진했다. 뒤이어 5분 동안 형언할 수 없는 소음과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거친 타격음과 총성이 난무했고, 그 틈을 타 도망치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르그라스 경위는 시무룩한 표정의 죄수 마흔일곱 명을 잡아낼 수 있었다. 그는 죄수들에게 서둘러 옷을 입게 한 뒤, 경찰 두 줄 사이에 세워 줄을 맞추게 했다. 예배를 드리던 이들 중 다섯 명은 현장에서 숨졌고, 중상을 입은 두 명은 동료 죄수들이 급히 만든 들것에 실려 나갔다. 물론 거대한 석상에 새겨진 형상은 르그라스가 조심스럽게 떼어내 직접 챙겨 돌아왔다.

극심한 피로와 긴장 속에서 압송된 죄수들을 본부에서 조사한 결과, 그들은 모두 지능이 낮고 혈통이 뒤섞인 정신 이상자들이었다. 대부분은 선원이었으며, 서인도 제도나 카보베르데 제도의 브라바 출신인 흑인과 혼혈인들이 몇몇 섞여 있었다. 이들 때문에 이 기괴한 집단 숭배는 마치 부두교 같은 색채를 띠는 듯 보였다.

하지만 질문을 던지기도 전에, 이 사건에는 흑인들의 미신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된 무언가가 얹혀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죄수들은 비천하고 무지한 자들이었으나, 그들이 믿는 혐오스러운 신앙의 핵심 교리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인류가 생겨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 온 '위대한 옛것들'을 숭배한다고 했다. 그 존재들은 하늘을 가로질러 이 젊은 행성에 찾아온 자들이었다. 이제 그 옛것들은 지구 내부와 바다 밑바닥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들의 죽은 육신은 꿈을 통해 인류의 시조에게 비밀을 속삭였고, 그 비밀을 바탕으로 결코 끊이지 않는 광신적 종교가 만들어졌다.

지금 마주한 이 집단이 바로 그 종교였다. 죄수들의 말로는, 이 종교는 세상 곳곳의 먼 황무지와 어두운 구석에 숨어 영원히 존재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했다. 대사제 크툴루가 바다 밑 거대 도시 를리에의 어두운 저택에서 깨어나, 다시금 지구를 자신의 지배 아래 두는 그날까지 말이다. 별들이 제 자리를 잡는 어느 날, 그는 부름을 내릴 것이고, 비밀스러운 종교는 그를 해방하기 위해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고문으로도 결코 캐낼 수 없는 비밀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지구상의 의식을 가진 존재들 사이에서 인류가 결코 유일한 존재는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기이한 형체들이 나타나, 선택받은 소수의 신봉자들을 찾아오곤 했으니까. 하지만 그들이 '위대한 옛것들'은 아니었다. 그 옛것들을 직접 본 인간은 아무도 없었다. 조각된 우상은 위대한 크툴루였으나, 다른 존재들도 정확히 그와 같은 모습인지는 아무도 말할 수 없었다. 이제는 그 고대 문자를 읽어낼 수 있는 이가 없었지만, 사람들은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를 전했다. 암송되는 의식 자체가 비밀은 아니었다. 그 주문은 결코 소리 내어 읊지 않았으며, 오직 속삭임으로만 전해질 뿐이었다. 주문의 의미는 오직 이것 뿐이었다.

"Ph'nglui mglw'nafh Cthulhu R'lyeh wgah'nagl fhtagn"

"를리에의 집에서 죽은 크툴루가 꿈꾸며 기다린다."

* * * * *

죄수들 중 제정신을 유지하고 있어 교수형에 처해질 수 있었던 자는 단 두 명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여러 수용 시설로 보내졌다. 그들 모두는 의식 살인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대신 그들은, 저주받은 숲속의 태고적 집회 장소에서 자신들에게 찾아온 '검은 날개의 존재들'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신비로운 조력자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일관된 설명도 얻을 수 없었다. 경찰이 간신히 캐낸 정보는 주로 카스트로라는 이름의 아주 나이 많은 메스티소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낯선 항구들로 향해해 다녔으며, 중국의 산맥

에 거주하는 사이비 종교의 불멸하는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주장했다.

늙은 카스트로는 신지학자들의 추측조차 초라하게 만들 만큼 끔찍한 전설의 파편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 전설 속에서 인간과 이 세상은 참으로 최근에 생겨난, 덧없는 존재에 불과했다. 인류가 나타나기 훨씬 이전, 다른 '존재들'이 지구를 지배하던 영겁의 시대가 있었다. 그들에게는 거대한 도시도 있었다. 죽지 않는 중국인들이 그에게 말해주길, 태평양의 어느 섬들에는 여전히 그들이 남긴 거대한 석조 유적들이 남아 있다고 했다.

그 존재들은 인류가 등장하기 훨씬 전, 아득한 시대에 모두 죽었다. 하지만 영겁의 순환 속에서 별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올 때, 그들을 부활시킬 수 있는 비술이 존재했다. 그들은 실제로 별들로부터 건너왔으며, 자신들의 형상 또한 함께 가져왔던 것이다.

카스트로는 말을 이었다. 위대한 옛것들은 온전히 살과 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었다. 별의 형상을 본뜬 이 형상이 증명하듯, 그들에게는 형태가 있었다. 하지만 그 형태는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별들의 배치가 올바를 때면, 그들은 하늘을 가로질러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뛰어들 수 있었다. 그러나 별들의 배치가 어긋나면, 그들은 살아갈 수 없었다.

그들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결코 완전히 죽은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거대한 도시 틀리에에 있는 돌집 속에 누워 있었다. 별과 지구가 다시금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될 날, 영광스러운 부활

을 맞이할 수 있도록 위대한 크툴루가 건 주문이 그들을 보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가 오더라도, 외부의 어떤 힘이 그들의 육신을 해방해 주어야만 했다. 그들을 온전하게 보존해 주는 주문은 동시에 그들이 처음 움직임조차 떼지 못하게 묶어두고 있었다. 그들은 그저 어둠 속에서 깨어 있는 채로, 수억 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며 생각할 뿐이었다.

그들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언어는 사고를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무덤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무한한 혼돈의 시간이 흐른 뒤 인류가 처음 나타났을 때, 위대한 옛것들은 예민한 인간들의 꿈을 조작하여 그들에게 말을 걸었다. 오직 그런 방식만이 포유류의 육신을 가진 정신에 그들의 언어를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카스트로는 나직이 속삭였다. 그 최초의 인간들은 위대한 옛것들이 보여준 작은 우상들을 중심으로 교단을 결성했다고 말이다. 그 우상들은 아득한 옛 시대, 어두운 별들로부터 건너온 것이었다. 별들의 위치가 다시 제자리를 찾는 날까지 그 교단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비밀스러운 사제들은 거대한 크툴루를 무덤에서 깨워, 그의 신도들을 부활시키고 지구에 대한 그의 통치를 재개할 것이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인류가 위대한 옛것들과 같은 존재가 될 때이기 때문이다. 법과 도덕을 내팽개친 채, 선악의 경계마저 넘어선 자유롭고 야만적인 존재가 되어, 모든 인간이 고향

을 지르고 살육하며 환희 속에 탐닉할 때가 바로 그때다. 그러면 해방된 옛것들은 인간에게 비명과 살육, 그리고 유흥을 즐기는 새로운 방식을 가르칠 것이며, 온 지구는 황홀경과 자유라는 이름의 거대한 불꽃에 휩싸일 것이다. 그동안 교단은 적절한 의식을 치르며 그 고대의 방식을 기억 속에 간직하고, 옛것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을 그림자처럼 드리우며 이어가야만 한다.

아주 먼 옛날, 선택받은 자들은 꿈속에서 무덤에 잠긴 '옛것들'과 대화를 나누곤 했다. 하지만 그 후 무언가 변했다. 거대한 석조 도시 플리에가 거대한 비석과 무덤들을 품은 채 파도 아래로 가라앉아 버린 것이다. 사고조차 미치지 못하는 근원적인 신비로 가득 찬 깊은 바다는, 영적인 교류를 완전히 끊어 놓았다.

그러나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대사제들은 별들의 위치가 올바르게 정렬되는 날, 그 도시가 다시 떠오를 것이라 예언했다. 그 뒤로 잊힌 해저 동굴에서 흘러나온 희미한 소문들을 품은 채, 곰팡이 냄새가 나고 그림자처럼 불길한 대지의 검은 영혼들이 땅 위로 기어 나왔다.

하지만 노인 카스트로는 그들에 대해 자세히 말하기를 꺼렸다. 그는 서둘러 화제를 돌렸고, 내가 아무리 완곡하게 설득하거나 교묘하게 질문을 던져도 더 이상의 이야기는 끌어낼 수 없었다. 기이하게도 그는 '옛것들'의 크기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를 거부했다.

그는 이 광신도 집단의 중심지가 아라비아의 길 없는 사막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 추측했다. 그곳에는 기둥의 도시 이렘이 숨겨진 채 꿈을 꾸고 있다고 말이다. 이 집단은 유럽의 마녀 숭배와는 관련이 없었으

며, 신도들 외에는 사실상 알려진 바가 없었다. 그 어떤 서적에서도 이들에 대해 암시한 적은 없었다. 다만 불사(不死)의 중국인들은 광기 어린 아랍인 압둘 알하즈레드가 쓴 『네크로노미콘』에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입문자라면 누구나 원하는 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많은 이들이 논쟁해 온 다음의 구절이 그러했다.

영겁의 세월 동안 잠들 수 있는 것이라면 죽은 것이 아니다. 기이한 영겁의 시간이 흐르면, 죽음조차 죽음을 맞이할 수 있으리니.

르그라스 경위는 깊은 인상을 받은 동시에 적잖이 당혹스러워했다. 그는 그 광신도 집단이 어떤 역사적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지 알아내려 애썼지만,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다. 카스트로가 그 집단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있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었던 모양이다. 툴레인 대학교 측에서도 그 교단이나 조각상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이제 이 사건을 조사하던 형사는 국가의 최고 권위자들까지 찾아갔으나, 웹 교수가 들려준 그린란드 이야기 외에는 그 어떤 실마리도 찾지 못했다.

* * * * *

르그라스 경위가 들려준 이야기는 그가 가져온 조각상 덕분에 더욱 설득력을 얻었다. 그날 모임에서 터져 나온 열띤 관심은 이후 참석자들 사이의 서신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비록 학회에서 발행한 공식 보고서에는 그 이야기가 거의 언급되지 않았지만 말이다.

가끔 사기꾼이나 가짜를 마주해야 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신중함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르그라스 경위는 한동안 그 조각상을 웹 교수에

게 빌려주었으나, 교수가 사망하자 다시 돌려받았다. 조각상은 여전히 그의 손에 있으며, 나 또한 얼마 전에 그것을 직접 보았다.

그것은 참으로 끔찍한 물건이었다. 젊은 윌콕스가 꿈속에서 보았다는 그 조각상과 틀림없이 닮아 있었다.

삼촌이 그 조각가 이야기를 듣고 흥분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르그라스 경위가 밝혀낸 그 광신도 집단의 실체를 알고 나면, 누구나 그런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늑지에서 발견된 조각상과 그린란드 악마 판의 형상, 그리고 그 위에 새겨진 정확한 상형문자까지 꿈에서 본 청년이라니. 게다가 에스키모 마술사들과 루이지애나의 잡종 광신도들이 똑같이 읊조리던 주문 중, 최소한 세 단어만큼은 그 청년이 꿈속에서 정확히 맞혔다. 앤젤 교수가 즉시 철저한 조사를 시작한 것도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었다. 다만 나는 내심 윌콕스라는 젊은이가 어떤 경로로든 그 집단에 대해 미리 듣고는, 삼촌을 골탕 먹이려고 신비감을 높이려 꾸며낸 꿈 이야기를 늘어놓는 게 아닌가 의심했다.

교수가 수집한 꿈에 관한 기록과 신문 기사들은 분명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였다. 하지만 이성적인 사고를 중시하는 내 입장에서는, 이 모든 상황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나는 원고를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했다. 신지학 및 인류학적 기록들을 르그라스 경위가 전한 광신도 집단의 이야기와 대조하며 면밀히 살폈다. 그리고 나서 나

는 프로비던스로 향했다. 학식 높은 노인을 상대로 이토록 대담하게 기만하려 든 그 조각가를 직접 만나 따끔하게 꾸짖어 주기 위해서였다.

월콕스는 여전히 토마스 가의 플뢰르 드 리스 빌딩에 홀로 살고 있었다. 그 건물은 17세기 브르타뉴 양식을 기괴하게 흉내 낸 빅토리아풍 건축물이었다. 고풍스러운 언덕 위, 아름다운 식민지풍 저택들 사이에서 그 건물은 회반죽을 덧칠한 외벽을 요란하게 드러내고 있었고, 미국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조지아 양식의 첨탑 바로 아래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그의 방에서 작업 중인 월콕스를 만났다. 방 안 여기저기에 흩어진 표본들을 보자마자, 나는 그의 천재성이 실로 깊고도 진실하다는 사실을 즉각 깨달았다. 나는 머지않은 미래에 그가 위대한 퇴폐주의 예술가 중 한 명으로 회자될 것이라 믿는다. 그는 찰흙으로 악몽과 환상을 형상화해냈고, 언젠가는 대리석을 통해 그 형상들을 투영해낼 것이기 때문이다. 아서 매첸이 산문으로 불러내고, 클라크 애슈턴 스미스가 시와 그림으로 형상화한 바로 그 악몽들을 말이다.

그는 어둡고 창백한 안색에 다소 초라한 모습이었다. 내가 문을 두드리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나른하게 몸을 돌리며 무슨 용건인지 물었다. 내가 누구인지 밝히자 그는 조금 관심을 보이는 듯했다. 나의 삼촌이 그의 기이한 꿈을 조사하며 호기심을 자극했었으나, 정작 왜 그런 연구를 하는지는 끝내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부분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대신 교묘한 방식으로 그가 먼저 입을 열도록 유도했다.

그가 하는 꿈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나는 곧 그가 결코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꿈의 내용을 설명하는 그의 방식은 누구라도 오해할 수 없을 만큼 명확했기 때문이다. 그 꿈과 무의식에 남은 잔상은 그의 예술 세계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는 기괴한 조각상 하나를 내게 보여주었는데, 그 형상이 뿜어내는 불길한 암시가 너무도 강렬해서 나는 몸을 떨 정도였다.

그는 이 조각상의 원형을 본 기억이 없다고 했다. 오직 자신의 꿈속에 나타난 부조로만 보았을 뿐이었다. 하지만 조각상의 윤곽은 그의 손 끝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형체를 갖추어 나갔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가 섬망 속에서 미친 듯이 떠들던 그 거대한 형상이었다.

그가 숨겨진 이교도 집단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내 삼촌이 끈질기게 캐물으며 흘린 정보들뿐이라는 사실도 곧 분명해졌다. 나는 그가 어떻게 그런 기이한 인상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 그 경로를 찾으려 애써 머리를 굴려 보았다.

그는 자신의 꿈을 기묘할 정도로 시적인 어조로 늘어놓았다. 그 이야기는 내 머릿속에 끄적할 만큼 생생한 광경을 그려냈다. 이끼 낀 초록빛 돌로 쌓아 올린, 축축하고 거대한 사이클롭스식 도시가 눈앞에 펼쳐졌다. 그는 그 도시의 기하학적 구조가 어딘가 기괴하게 뒤틀려 있다고 덧붙였다. 나는 공포에 질린 채, 지하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마치 환청 같은 부름을 듣는 듯했다.

"Cthulhu fhtagn," "Cthulhu fhtagn."

이 말들은 죽은 크툴루가 를리에의 석실에서 꿈을 꾸며 깨어 있다는 사실을 전하는, 그 끔찍한 의식의 일부였다. 이성적인 신념을 가진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깊은 전율을 느꼈다. 월콕스는 아마 어딘가에서 우연히 이 광신도 집단에 대해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기괴한 입을거리와 상상에 파묻혀 살던 그는 곧 그 사실을 잊어버렸을 터였다. 그러다 나중에 그 내용이 지닌 압도적인 인상 때문에, 그의 무의식 속에서 꿈이나 부조, 그리고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끔찍한 조각상 같은 형태로 발현되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삼촌을 속이려 했던 그의 행동은 사실 아주 순수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 청년은 약간은 거들먹거리면서도 예의가 없는, 내가 결코 좋아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의 천재성과 정직함을 기꺼이 인정하려 한다. 나는 그와 원만하게 작별 인사를 나누었으며, 그의 재능이 약속하는 모든 성공이 그에게 따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 교단의 정체는 여전히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그 기원과 연관성을 파헤치다 보면 언젠가 학계의 명성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환상에 빠지기도 했다. 나는 뉴올리언스로 떠났다. 그 옛날 습격대를 이끌었던 르그라스 경위와 다른 이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끔찍한 형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살아남은 잡종 죄수들을 상대로 심문까지 이어갔다. 안타깝게도 노년의 카스트로는 이미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뒤였다.

내가 직접 목격하고 들은 생생한 사실들은, 사실 삼촌이 남긴 기록을 상세히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그것은 나를 다시금 흥

분시켰다. 나는 확신했다. 내가 지금 아주 실재하며, 은밀하고도 고대의 비밀을 간직한 어떤 종교의 흔적을 쫓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 종교를 밝혀낸다면 나는 이름난 인류학자가 될 것이 분명했다.

당시 나의 태도는 철저히 유물론적이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말이다. 그래서 나는 앤젤 교수가 수집한 기묘한 신문 스크랩들과 꿈에 관한 기록들이 서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완강하게 부정하며 무시했다.

내가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차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다. 삼촌의 죽음은 결코 자연사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삼촌은 이방인들이 들끓는 오래된 항구에서 뺏어 나온 좁은 언덕길을 오르던 중, 한 흑인 선원이 부주의하게 밀친 탓에 추락했다. 루이지애나의 광신도들이 혼혈이 많고 해상 활동에 종사한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면, 그들이 믿는 기괴한 의식이나 신앙만큼이나 잔혹하고 오래된 비밀스러운 수법이나 독침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르그라스 경위와 그의 대원들은 다행히 무사한 듯 보이지만, 노르웨이에서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던 한 선원이 죽었다. 삼촌이 조각가로부터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그 소식이 불길한 귀에 들어가지 않았으리라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앤젤 교수 역시 너무 많은 것을 알았거나, 혹은 알게 될 것 같았기에 죽음을 맞이했다고 생각한다. 나 또한 교수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나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제3부 · 바다에서 온 광기

하늘이 내게 은총을 베푼다면, 그건 아마도 내 눈을 어느 길가에 굴러다니던 종이 조각에 머물게 했던 그 우연한 사건을 통째로 지워버리는 일일 것이다.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마주칠 만한 물건도 아니었다. 그것은 1925년 4월 18일 자 호주 잡지, 《시드니 불레틴》의 옛 잡지였다. 당시 삼촌의 연구 자료를 열성적으로 수집하던 편집부조차 이 잡지만은 미처 챙기지 못한 채 놓쳐버린 것이었다.

나는 앤젤 교수가 '크톨루 신앙'이라 불렀던 그 정체에 대한 조사를 거의 중단한 상태였다. 그러던 중 뉴저지주 패터슨에 사는 한 학식 높은 친구를 방문하게 되었다. 그는 지역 박물관의 관장이자 저명한 광물 학자였다.

어느 날, 나는 박물관 뒷방 보관 선반에 대충 놓여 있던 표본들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러다 돌들 아래 펼쳐진 오래된 신문 한 장에서 기이한 사진 하나를 발견하고는 눈을 땔 수 없었다. 내 친구는 전 세계 곳곳에 폭넓은 인맥을 자랑했기에, 그 신문은 내가 앞서 언급했던 《시드

니 불레틴》이었다. 사진은 망점 인쇄된 신문 컷이었는데, 그 형상은 르그라스 경위가 늑지대에서 찾아냈던 그 끔찍한 석상과 거의 똑 닮아 있었다.

나는 서둘러 종이에서 귀중한 내용을 훑어 내려갔다. 세세하게 내용을 살폈으나, 생각보다 분량이 그리 길지 않다는 사실에 실망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 짧은 글이 암시하는 바는 지쳐가던 나의 탐색에 엄청난 실마리를 던져주었다. 나는 즉시 행동에 옮기기 위해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뜯어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바다 위에서 발견된 의문의 표류선

요트 '비질런트'호, 무장했으나 속수무책이었던 뉴질랜드 선박을 끌고 도착하다. 선상에서 생존자 한 명과 시신 한 구 발견. 바다 위에서 벌어진 처절한 사투와 죽음에 관한 기록. 구조된 선원은 기이한 경험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거부하다. 그의 소지품에서 기묘한 우상이 발견됨. 추후 조사 예정.

모리슨 사의 화물선 '비질런트 호'가 오늘 아침 달링 항구의 부두에 도착했다. 발파라이소에서 출발한 이 배는 뉴질랜드 더니든에서 온 증기 요트 '알러트호'를 예인하고 있었다. 알러트호는 전투를 치른 듯 곳곳이 파손되어 기동 불능 상태였으나, 무장은 여전히 강력했다. 이 요트는 지난 4월 12일 남위 34° 21', 서경 152° 17' 지점에서 발견되었으며, 당시 선상에는 생존자 한 명과 사망자 한 명이 타고 있었다.

비질런트호는 3월 25일 발파라이소를 떠났다. 그러다 4월 2일, 유레 없이 거센 폭풍과 집채만 한 파도를 만나 예정된 항로에서 한참이나 남쪽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4월 12일, 마침내 이 유령선이 발견되었다. 배 안에는 아무도 없는 듯 보였으나, 막상 승선해 보니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생존자 한 명과 이미 일주일 넘게 죽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남성 한 명이 남아 있었다.

살아남은 남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끔찍한 석상을 움켜쥐고 있었다. 높이는 약 1피트 정도였다. 시드니 대학교와 왕립 학회, 그리고 컬리지 스트리트에 있는 박물관의 관계자들은 모두 이 석상의 정체를 도저히 알 수 없다고 단언했다. 생존자의 말에 따르면, 그는 요트 선실에 놓인 흔한 형태의 작은 조각된 석상 안에서 이 석상을 발견했다고 한다.

정신을 차린 그는 해적질과 학살에 관한 기이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이름은 구스타프 요한센으로, 제법 총명한 노르웨이인이었다. 그는 오클랜드에서 출발한 돛대 두 개의 스쿠너호, '엠마호'의 이등 항해사였다. 엠마호는 지난 2월 20일, 선원 11명을 태우고 칼라오를 향해 출항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엠마호는 3월 1일에 몰아친 거대한 폭풍 때문에 항로를 이탈하여 남쪽 멀리 밀려났다고 한다. 그러다 3월 22일, 남위 49° 51', 서경 128° 34' 지점에서 알러트호를 마주쳤다. 알러트호에는 카나카인과 혼혈들로 구성된, 기괴하고 사악해 보이는 선원들이 타고 있었다. 콜린스 선장은 즉시 회항하라는 명령을 단호히 거부했다. 그

러자 그 기묘한 선원들은 예고도 없이 야호트의 장비 중 하나인 황동 대포를 이용해, 아주 묵직하고 난폭한 포격을 스쿠너호에 퍼붓기 시작했다.

생존자의 말에 따르면, 엠마호의 선원들은 격렬히 저항했다. 수면 아래로 쏟아지는 포탄 때문에 스쿠너호가 가라앉기 시작했음에도, 그들은 필사적으로 적선에 접근해 배를 붙이는 데 성공했다. 선원들은 요트의 갑판 위에서 야만적인 선원들과 뒤엉켜 싸웠다. 적들의 수는 약간 더 많았으나, 그들의 전투 방식은 유독 끔찍하고 필사적이었으며 동시에 매우 서투랐다. 결국 선원들은 그들을 모두 죽여야만 했다.

콜린스 선장과 일등 항해사 그린을 포함해 엠마호의 선원 세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등 항해사 요한센이 이끄는 나머지 여덟 명의 선원은 탈취한 요트를 몰고 항해를 계속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회항 명령을 내렸던 이유가 정말로 존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원래 가려던 방향을 향해 나아갔다.

다음 날, 그들은 어떤 작은 섬에 상륙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해역에는 그런 섬이 존재한다는 기록이 전혀 없다. 상륙한 인원 중 여섯 명은 해안에서 목숨을 잃었다. 요한센은 이 대목에서 이상하리만큼 말을 아꼈으며, 그저 대원들이 바위 틈새로 추락했을 뿐이라고만 짧게 언급했다.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그와 동료 한 명이 요트에 올라타 배를 조종하려 애썼던 모양이다. 하지만 4월 2일에 몰아친 폭풍우에 속수무책으로 휘말리고 말았다.

그 시점부터 12일 구조될 때까지, 그는 기억하는 것이 거의 없다. 동행했던 윌리엄 브라이든이 언제 죽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다. 브라이든의 사인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으나, 아마도 극심한 흥분 상태였거나 혹은 외부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된 탓이었을 것이다.

더니든에서 온 전보에 따르면, 알러트호는 그곳에서 섬을 오가는 무역선으로 잘 알려져 있었으나, 항구 근처에서는 악명이 높았다. 이 배의 주인은 정체불명의 혼혈 집단이었는데, 그들이 자주 모임을 갖고 밤마다 숲으로 여행을 떠나는 모습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알러트호는 지난 3월 1일, 폭풍과 지진이 몰아친 직후 서둘러 출항했다.

오클랜드 특파원의 보고에 따르면, 엠마호와 그 선원들은 평판이 매우 좋았다. 요한센 역시 술을 멀리하며 품행이 단정한 신망 두터운 인물로 묘사되었다.

해군성은 내일부터 이 사건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요한센이 지금까지보다 더 솔직하게 입을 열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 * * *

지옥 같은 형상의 그림과 더불어 이 모든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이 사실들이 내 머릿속에 불러일으킨 생각의 연쇄는 실로 엄청났다. 크툴루 교단에 관한 새로운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들이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기괴한 관심을 두고 있다는 증거도 드러났다. 그 흥측

한 우상을 품고 항해하던 혼종 선원들은 대체 어떤 동기로 엠마호를 되돌리려 했던 것일까? 엠마호 선원 중 여섯 명이나 목숨을 잃었다는 그 미지의 섬은 어디이며, 이등 항해사 요한센은 왜 그 섬에 대해 그토록 함구했던 것일까? 해사법원은 조사 과정에서 무엇을 밝혀냈으며, 더니든에 퍼진 그 해로운 교단에 대해서는 무엇이 알려져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경이로운 것은, 삼촌이 그토록 세심하게 기록해 둔 여러 사건의 흐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낱자들 사이에 얽힌, 자연의 섭리를 넘어선 이 깊고도 기괴한 연결 고리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불길한 의미를 띠며 나를 압도하고 있었다.

3월 1일—국제 날짜 변경선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의 2월 28일이다—지진과 폭풍이 몰아쳤다. 더니든에서 '알러트호'와 그 불쾌한 선원들은 마치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라도 받은 듯 서둘러 출항했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시인과 예술가들이 기괴하고 축축한 거대 석조 도시를 꿈꾸기 시작했고, 한 젊은 조각가는 잠결에 그 공포스러운 크툴루의 형상을 빚어냈다. 3월 23일, '엠마호'의 선원들이 이름 모를 섬에 상륙했다가 여섯 명의 시신을 남긴 채 돌아왔다. 같은 날, 예민한 이들의 꿈은 더욱 선명해졌으며, 거대한 괴물이 자신을 악의적으로 뒤쫓는다는 공포로 어둡게 물들었다. 한 건축가는 미쳐버렸고, 한 조각가는 갑작스러운 섬망 상태에 빠졌다! 그렇다면 4월 2일에 몰아친 이 폭풍은 또 무엇인가. 그날로 축축한 도시에 대한 모든 꿈은 멈췄고, 윌콕스는 기묘한 열병의 속박에서 무사히 벗어났다. 이 모든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별에서 온, 가라앉은 '위대한 옛것들'과 그들이 가져올 통치, 그리고 그들의 충실한 광신도들과 '꿈을 지배하는 권능'에 대해 카스트로가

남긴 암시들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우주적 공포의 벼랑 끝에서 비틀거리고 있었던 것인가? 만약 그랬다면, 그 공포는 오직 정신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어야 했다. 어떤 식으로든 4월 2일이라는 날이, 인류의 영혼을 포위하기 시작했던 그 괴물 같은 위협을 멈춰 세웠기 때문이다.

* * * * *

그날 저녁, 서둘러 전보를 치고 일정을 조율하며 분주한 하루를 보낸 뒤, 나는 집주인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고 샌프란시스코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더니든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확인한 결과, 오래된 선술집을 전전하던 그 기괴한 광신도들에 대하여 아는 이는 거의 없었다. 부둣가 쓰레기 같은 부류들은 워낙 흔한 존재라 굳이 따로 언급할 가치조차 없었다. 다만 이 잡종들이 내륙으로 한 차례 여행을 떠났다는 막연한 소문만이 떠돌 뿐이었다. 당시 멀리 떨어진 언덕 위에서 희미한 북소리와 붉은 불꽃이 목격되었다는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었다.

오클랜드에서 나는 요한센에 관한 소식을 들었다. 그는 시드니에서 형식적이고도 결론 없는 심문을 받은 뒤, 노랑던 머리카락이 하얗게 세어버린 채 돌아왔다고 했다. 그 후 그는 웨스트 스트리트에 있던 집을 팔고 아내와 함께 고향인 오슬로로 떠났다. 그는 자신이 겪은 그 격동적인 경험에 대해 해군 관계자들에게 말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들려주지는 않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가 머무는 오슬로의 주소를 알아내는 것뿐이었다.

그 후 나는 시드니로 떠났다. 그곳에서 선원들과 해사법원 관계자들을 만나보았으나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다. 시드니 코브의 서큘러 키에서는 이제 매각되어 상업용으로 쓰이고 있는 '알러트호'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선체는 그 어떤 단서도 내어주지 않은 채 묵묵부답이었다.

하이드 파크 박물관에는 그 형상이 보존되어 있었다. 갑오징어를 닮은 머리에 용의 몸, 비늘 돋친 날개를 지닌 채 상형문자가 새겨진 받침대 위에 웅크리고 있는 그 형상 말이다. 나는 그것을 오랫동안 면밀히 관찰했다. 그것은 불길할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조각이었다. 르그라스 경위가 보여준 작은 표본에서 느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형언할 수 없는 신비함과 공포스러운 고대성,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기이한 재질을 그대로 품고 있었다.

박물관 관장의 말에 따르면, 지질학자들조차 이 조각을 거대한 수수께끼로 여기고 있다고 했다. 지구상에는 이와 같은 암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들이 단언했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옛 카스트로가 르그라스 경위에게 태초의 '위대한 옛것들'에 대해 말했던 내용을 떠올리며 몸서리쳤다.

"그들은 별들 사이에서 왔으며, 자신들의 형상을 함께 가져왔다네."

이전에는 결코 겪어본 적 없는 정신적 격변에 휩싸인 나는, 이제 오슬로에 있는 요한센의 친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런던으로 향하던 배에서 내려 곧장 노르웨이의 수도로 향하는 배에 다시 몸을 실었다.

어느 가을날, 나는 에게베르크 산 그림자가 드리운 깔끔한 부두에 발을 내디뎠다.

요한센의 주소는 킹 하랄드 하르드라다의 구시가지에 있었다. 대도시 오슬로가 '크리스티아니아'라는 이름을 내걸고 위장하며 지내던 수세기 동안, 그곳은 오슬로라는 이름을 곳곳이 지켜온 곳이었다. 나는 택시를 타고 짧은 거리를 이동했다. 회반죽을 바른 외벽이 인상적인, 깔끔하고도 오래된 건물 앞에 도착하자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다. 검은 옷을 입은 슬픈 표정의 여인이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서툰 영어로 구스타프 요한센이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뼈아픈 실망감에 휩싸였다.

그의 아내의 말에 따르면, 그는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두었다. 1925년 바다에서 겪은 일들이 그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기 때문이다. 그는 아내에게도 대중에게 공개한 것 이상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긴 원고 한 권을 남겼는데, 본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기술적인 문제들'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는 아내가 우연히 읽게 되어 겪을지도 모를 위험을 막으려는 듯, 원고를 영어로 작성해 두었다.

사고는 예테보리 항구 근처의 좁은 골목을 걷던 중에 일어났다. 다락방 창문에서 떨어진 종이 뭉치가 그를 덮쳤고, 그는 그대로 쓰러졌다. 라스카 선원 두 명이 즉시 그를 일으켜 세우며 도왔으나,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는 그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의사들은 명확한 사인(死因)을 밝혀내지 못했고, 그저 심장 질환과 허약해진 체질 탓으로 돌릴 뿐이었다.

그 어두운 공포가 내 내장을 갉아먹는 듯한 감각이 느껴졌다. 이 공포는 내가 '사고'로 죽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죽든, 내가 영원한 안식에 들 때까지 결코 나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미망인을 설득했다. 내가 남편의 '기술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니 원고를 넘겨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이다. 그렇게 원고를 챙겨 나온 나는 런던으로 향하는 배 안에서 그것을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하고도 두서없는 기록이었다. 그 마지막 끔찍한 항해를 하루하루 되짚어 보려 애쓴, 순진한 선원의 사후 일기 같은 것이었다. 그 기록이 워낙 모호하고 군더더기가 많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옮길 수는 없겠지만, 그 핵심만은 들려줄 수 있다. 그래야만 왜 내가 배 옆면을 때리는 물소리를 견디지 못해 귀에 솜을 채워 넣어야 했는지 설명할 수 있을 테니까.

다행히도 요한센은 그 도시와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진실을 알지는 못했다. 하지만 나는 다시는 평온하게 잠들지 못할 것이다. 시간과 공간 속의 삶 이면에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는 공포를 떠올릴 때마다, 그리고 저 먼 옛날의 별들로부터 온 불경한 존재들이 바다 밑에서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말이다. 악몽 같은 광신도들은 그 존재들을 알고 있으며 그들의 총애를 받는다. 그들은 또 다른 지진이 일어나 괴물 같은 석조 도시를 다시 태양과 공기 중으로 밀어올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그 존재들이 세상에 풀려나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준비하고 있다.

* * * * *

요한센이 해사법원에 진술한 내용은 그가 실제로 겪은 항해의 시작과 정확히 일치했다. 2월 20일, 평형수를 실은 '엠마호'는 오클랜드를 떠났다. 그때 배는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거대한 폭풍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다. 그 폭풍은 분명 바다 밑바닥에서 인간의 꿈을 잠식하는 공포의 존재들을 휘저어 올렸을 것이다.

폭풍을 뚫고 다시 항로를 잡은 배가 순조롭게 나아가던 중, 3월 22일 '알러트호'에 의해 발이 묶이게 된다. 이등 항해사가 쓴 보고서에는 '엠마호'가 포격을 당하고 침몰하던 당시의 상황이 담겨 있었는데, 그 글귀마다 못내 아쉬워하는 그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졌다. 그는 '알러트호'에 타고 있던 거무스름한 광신도들에 대해 형언할 수 없는 공포를 드러내며 기록했다. 그들에게서는 무언가 유독 끔찍하고 불쾌한 기운이 흘러나왔기에, 그들을 몰살한 것은 거의 의무에 가까운 일처럼 보였다. 요한센은 이후 조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일행이 무자비하다는 비난을 받자, 순진할 정도로 의아해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 후, 요한센의 지휘 아래 나포된 요트를 타고 호기심에 이끌려 나아가던 선원들은 바다 위로 솟아오른 거대한 돌기둥을 발견했다. 남위 47° 9', 서경 126° 43' 지점에 이르자, 진흙과 오물, 그리고 해초가 뒤엉킨 해안선이 나타났다. 그곳에는 거대한 석조 구조물들이 기괴하게 얹혀 있었다. 그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끔찍한 실체, 즉 '틀리에'의 악몽 같은 시체 도시임이 분명했다. 이 도시는 아득한 태고의 시간, 어두운 별들로부터 스며 나온 거대하고 혐오스러운 존재들이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세운 곳이다.

그곳에는 위대한 크툴루와 그의 무리가 녹색 점액이 흐르는 지하 묘실에 숨어 있었다. 그들은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 잠들어 있다가, 마침내 그들의 사념을 세상 밖으로 내뿜기 시작했다. 그 사념은 예민한 자들의 꿈속에 공포를 퍼뜨렸고, 신봉자들에게는 해방과 부활을 위한 순례를 떠나라고 오만하게 명령했다. 요한센은 이 모든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 하지만 신이시여, 그가 곧 목격하게 될 일들을 생각하면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보게 될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바다 위로 솟아오른 것은 오직 단 하나의 산봉우리뿐이었을 것이다. 거대한 크툴루가 매장된, 흉측한 단일 암석이 왕관처럼 얹힌 그 요새 말이다. 그 심해 아래에서 무엇이 도사리고 있을지 그 규모를 짐작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당장이라도 목숨을 끊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요한센과 그의 대원들은 고대의 악마들이 깃든, 물에 젖은 바빌론과도 같은 그곳의 우주적 위엄에 압도당했을 것이다. 그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곳이 이 행성이나 그 어떤 제정신인 행성의 것이 아님을 직감했을 것이 분명하다.

초록빛 석재 블록들의 믿기지 않는 크기, 아찔할 정도로 높이 솟은 거대한 조각 암석, 그리고 탐사선 알러트호의 성소에서 발견된 기괴한 형상과 소름 끼치도록 닮은 거대 석상과 부조들. 일등 항해사가 공포에 질려 남긴 기록의 문장마다, 그 경악스러운 광경에 대한 경외감이 처절하게 배어 있다.

요한센이 그 도시를 설명할 때 보여준 모습은, 미래주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더라도 그에 매우 근접한 것이었다. 그는 구체적인

구조물이나 건물을 묘사하는 대신, 거대한 각도와 석조 표면이 주는 막연한 인상만을 되풀이해서 늘어놓았다. 그 표면들은 이 땅의 그 어떤 이치나 질서에도 속할 수 없을 만큼 거대했으며, 끔찍한 형상과 상형문자들로 뒤덮여 불경스러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내가 굳이 그가 말한 '각도'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것이 윌콕스가 내게 들려주었던 그 끔찍한 꿈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윌콕스는 자신이 본 꿈속 공간의 기하학적 구조가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윌리드 기하학을 벗어난 것이었으며,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동떨어진 구체와 차원들을 역겹도록 강렬하게 연상시켰다. 글조차 모르는 선원이 그 끔찍한 실체를 마주하며 느낀 감각이, 바로 그것이었다.

요한센과 대원들은 이 기괴한 아크로폴리스의 경사진 진흙 언덕에 상륙했다. 그들은 인간이 만든 계단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거대하고 진득한 점토 덩어리들을 미끄러지며 기어 올라갔다. 바다에 젖은 이 뒤틀린 괴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편광된 독기 너머로 하늘의 태양조차 일그러져 보였다. 조각된 암석의 기괴하고도 교묘한 각도 사이에는 뒤틀린 위협과 긴장감이 비웃듯 도사리고 있었다. 그 암석들은 언뜻 볼 때는 볼록해 보이다가도, 다시금 눈을 돌려 살펴보면 기묘하게 오목하게 파여 있는,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형상이었다.

탐험가들은 바위와 진흙, 해초 말고는 그 어떤 구체적인 형체도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모두가 공포에 질린 듯한 기색을 보였다. 만약 동료들의 비웃음을 사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면, 그들 중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도망쳤을 것이다. 그들은 가져갈 만한 기념품이라도 찾아보려

애썼지만, 그마저도 반쯤은 마지못해 하는 몸짓이었으며 결국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한 채 헛수고로 끝났다.

포르투갈인 로드리게스가 거대한 석조물의 발치로 기어올라가 자신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소리치며 시작되었다. 나머지 일행도 그를 따라 올라갔다. 그들은 이제는 익숙해진, 오징어와 용을 뒤섞어 놓은 듯한 부조가 새겨진 거대한 문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요한센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마치 거대한 헛간 문 같았다. 화려하게 장식된 인방과 문턱, 그리고 문설주가 갖춰져 있었기에 모두가 그것을 문이라고 느꼈다. 다만 그것이 바닥에 평평하게 놓인 함정 문인지, 아니면 외부 지하실 문처럼 비스듬히 세워져 있는지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었다. 월콕스라면 이 상황을 두고 그곳의 기하학적 구조가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말했을 것이다. 바다와 지면이 수평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기에, 주변의 모든 사물은 기괴할 정도로 위치가 뒤바뀌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브라이든이 돌의 여러 지점을 밀어보았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러자 도노반이 돌의 가장자리를 따라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훑으며, 지점마다 하나씩 힘을 주어 눌러보았다. 그는 기괴한 돌 장식을 따라 끝도 없이 기어 올라갔다. 사실 그 물체가 수평으로 놓여 있지 않았다면 '기어 올라간다'고 표현했을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어떻게 이토록 거대한 문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의아해했다. 그때, 에이커(acre)만큼이나 거대한 판의 윗부분이 아주 부드럽고 천천히 안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그제야 사람들은 그 문이 무게 중심을 잡고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도노반은 문설주를 타고 미끄러지듯, 혹은 어떤 힘에 밀려 내려가 동료들 곁으로 돌아왔다. 일행은 모두 기괴하게 조각된 거대한 문이 뒤로 물러나는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았다. 프리즘을 통과한 듯 일그러진 환상 속에서, 문은 비정상적인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 모습은 마치 물질의 법칙과 원근법의 모든 규칙이 뒤틀려 버린 것만 같았다.

그 틈새는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짙은 어둠으로 가득했다. 그 어둠은 단순한 빛의 부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실체적인 성질을 띠고 있었다. 어둠은 마땅히 보여야 할 내부 벽면의 모습조차 집어삼켰다. 그러더니 마치 영겁의 세월 동안 갇혀 있던 연기처럼 뿔어져 나와, 쪼그라든 보름달 같은 하늘 속으로 파닥거리는 막질의 날개를 펼치며 숨어드는 태양마저 눈에 띄게 가려버렸다.

새로 열린 심연에서 풍겨 나오는 악취는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 귀가 밝은 호킨스는 마침내 저 밑바닥에서 무언가 불쾌하게 질척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 괴물이 침을 흘리며 육중한 몸을 끌고 나타나, 그 젤리 같은 초록빛 거구를 검은 문틈으로 더듬더듬 밀어 넣으며 광기의 독성 도시, 그 오염된 바깥 공기 속으로 비집고 들어올 때까지도 모두는 숨을 죽인 채 듣고 있었다.

불쌍한 요한센은 이 대목을 적어 내려갈 때 글씨가 거의 뭉개질 지경이었다. 배에 올라타지 못한 여섯 명 중 두 명은 그 저주받은 찰나에 순전한 공포로 목숨을 잃었다고 그는 생각한다. 그 존재는 도저히 형언할 수 없다. 비명과 아득한 광기, 물질과 힘, 그리고 우주의 질서가 뒤

섞인 기괴한 모순이 만들어낸 그 심연을 표현할 언어 따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거대한 산 하나가 걸어오거나 비틀거리며 다가온 것과 같았다. 세상에! 지구 반대편의 위대한 설계자가 미쳐버리고, 불쌍한 월콕스가 그 텔레파시가 전해진 순간 열병에 걸려 헛소리를 내뱉은 것이 어찌 이상한 일이겠는가? 우상 속에 잠들어 있던 존재, 별들로부터 내려온 초록빛의 끈적이는 후손이 제 것을 되찾기 위해 깨어난 것이다. 별들이 다시 제 자리를 찾았다. 수천 년을 이어온 광신도들이 계획을 세워도 해내지 못한 일을, 아무것도 모르는 선원들이 우연히 해내고 만 것이다. 무한한 세월이 흐른 끝에, 위대한 크툴루가 다시 풀려나 굶주린 탐욕을 채우려 하고 있다.

누군가 뒤를 돌아보기도 전에, 흐물거리는 발톱이 세 남자를 휩쓸어 갔다. 우주에 안식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부디 그들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희생된 이들은 도노반과 게레라, 그리고 앙스트롬이었다. 나머지 세 사람이 끝없이 펼쳐진 이끼 낀 바위 위를 미친 듯이 달려 배를 향해 내달리는 사이, 파커는 미끄러져 사라졌다. 요한센의 말에 따르면, 그는 원래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석조 구조물의 모서리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고 한다. 그 모서리는 분명 예리한 각을 이루고 있었으나, 마치 둔각처럼 기괴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결국 브라이든과 요한센만이 배에 도달했다. 산더미 같은 괴물이 미끈거리는 돌 위를 허우적거리며 내려와 물가에서 머뭇거리는 사이,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알러트호를 향해 노를 저었다.

선원들이 모두 육지로 떠났음에도 증기는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였다. 덕분에 몇몇 사람이 엔진과 바퀴 사이를 정신없이 오가며 분주히 움직인 덕에, 얼마 지나지 않아 알러트호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형언할 수 없는 공포의 광경 속에서, 배는 기괴하게 뒤틀린 죽음의 바다를 천천히 헤치며 나아갔다. 한편, 지상의 것이 아닌 듯한 그 도살장 같은 해안의 석조물 위에서는, 별에서 온 거대한 존재가 폴리페모스가 오디세우스의 배를 저주하듯 침을 흘리며 횡설수설하고 있었다.

이윽고 그 거대한 크툴루는 전설 속 키클롭스보다 더 대담하게, 미끄러지듯 바다로 몸을 던졌다. 그것은 우주적인 힘을 담아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며 배를 뒤쫓기 시작했다. 뒤를 돌아본 브라이든은 결국 미쳐 버리고 말았다. 그는 요한센이 헛소리를 하며 헤매던 어느 날 밤, 선실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간헐적으로 날카로운 웃음을 터뜨리며 광기 어린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요한센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증기압이 충분히 올라올 때까지 저 괴물이 분명 알러트호를 따라잡을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한 그는, 마지막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엔진을 최대 속도로 올린 뒤, 번개 같은 속도로 갑판으로 달려가 키를 반대로 돌렸다.

악취 나는 바닷물 속에서 거대한 소용돌이와 거품이 일어났다. 증기압이 점점 더 높아지는 가운데, 용맹한 노르웨이인은 추격해오는 젤리 같은 괴물을 향해 배를 정면으로 몰아붙였다. 불결한 거품 위로 솟아오른 괴물의 형상은 마치 악마의 갤럭시온선 선미처럼 보였다. 꿈틀거리는

촉수를 가진 그 끔찍한 오징어 머리가 튼튼한 요트의 선수(船首) 근처까지 육박해 왔으나, 요한센은 멈추지 않고 거침없이 배를 몰았다.

마치 방광이 터져 나가는 듯한 파열음이 들렸다. 갈라진 쥐가오리의 내장이 터져 나올 때처럼 질척거리고 불쾌한 소리가 뒤따랐다. 수천 개의 무덤을 한꺼번에 파헤친 듯한 악취가 진동했고, 기록자가 차마 글로 옮길 수조차 없는 기괴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찰나의 순간, 배는 눈을 멀게 할 만큼 자극적이고 푸르스름한 녹색 구름에 휩싸였다.

그 뒤로 배의 후미에는 독기를 품은 채 부글거리는 움직임만이 남았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이름 모를 괴물은, 흩어졌던 형체들을 끔찍한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결합하고 있었다. 세상에, 신이시여! 증기를 내뿜으며 속도를 높이는 알러트호가 멀어질수록, 그 괴물과의 거리는 매초마다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다.

* * * * *

그게 전부였다. 그 일이 있은 뒤, 요한센은 선실에 홀로 앉아 이상만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저 자신과 곁에서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는 미치광이의 끼니를 챙길 뿐이었다. 첫 번째의 그 대담한 항해 이후, 그는 다시는 배를 몰려 하지 않았다. 그 충격이 그의 영혼에서 무언가를 앗아갔기 때문이다.

그러다 4월 2일, 폭풍이 몰아쳤다. 그리고 그의 의식 위로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무한한 액체의 심연 속을 유령처럼 휘몰아치는 기분, 혜성의 꼬리를 타고 비틀거리는 우주를 가로지르며 어지럽게 질주

하는 기분, 그리고 심연에서 달로, 다시 달에서 심연으로 히스테릭하게 추락하는 기분이 그를 덮쳤다. 이 모든 광경은 기괴하고도 유쾌한 옛 신들의 비웃음 섞인 합창과, 타르타로스의 초록빛 박쥐 날개를 단 조롱 섞인 악마들이 내지르는 웃음소리에 맞춰 더욱 생생하게 살아 움직였다.

그 꿈속에서 구원이 찾아왔다. 비질런트 호, 해사법원, 더니든의 거리, 그리고 에게베르그가 옆에 있는 옛집으로 돌아오는 긴 항해로 말이다. 그는 차마 설명할 수 없었다. 설명했다가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게 뻔했다. 죽음이 찾아오기 전까지 자신이 아는 것들을 글로 남기겠지만, 아내만큼은 짐작조차 못하게 해야 했다. 만약 죽음이 이 기억들을 모두 지워줄 수만 있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축복일 터였다.

내가 읽은 문서는 바로 그것이었다. 이제 나는 그 문서를 부조 옆에 놓인 양철 상자 안, 앤젤 교수의 서류들과 함께 넣어 두었다. 그리고 이 기록 또한 그곳에 함께 묻으려 한다. 이것은 내 정신이 아직 온전한지를 증명하기 위한 기록이자, 다시는 누구도 맞추지 않기를 바라는 파편들을 하나로 모아놓은 결과물이다.

나는 우주가 품고 있는 모든 공포를 목도했다. 이제 봄날의 하늘도, 여름날의 꽃들도 내게는 영원한 독이 되어버릴 것이다. 내 삶이 그리 길지는 않을 것 같다. 불쌍한 요한센이 그랬듯, 나의 숙부께서 그러하셨듯, 나 또한 그렇게 생을 마감할 것이다.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고, 그 광신도들은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다.

크톨루 역시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다. 태양이 쬔었을 적부터 그를 숨겨온 저 돌의 심연 속에서 말이다. 4월의 폭풍이 지나간 뒤, '비질런트'호가 그 지점을 지나갔으니 그의 저주받은 도시는 다시금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을 터다. 하지만 지상의 사제들은 여전히 외딴곳에 세워진 우상 덮인 거석 주위에서 울부짖고, 날뛰며, 살육을 저지르고 있다. 그가 검은 심연 속에 갇혀 있는 동안 대륙이 침몰한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았다면 세상은 이미 공포와 광기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을 테니까.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솟아오른 것이 다시 가라앉을 수도 있고, 가라앉았던 것이 다시 솟아오를 수도 있다. 심해에는 역겨운 존재가 기다리며 꿈을 꾸고 있고, 인간의 위태로운 도시들 위로는 부패가 번져가고 있다. 언젠가 그 때가 오고야 말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니, 생각할 수도 없다!

부디 기도할 뿐이다. 만약 내가 이 원고를 남기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 내 유언 집행인들이 용기보다는 신중함을 택하기를. 그래서 이 글이 다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해주기를.